

기획 3

해외를 향해 뛰는 국내 기업들

정창구 실장 cgjung@icak.or.kr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

ENR지에서 발표한 2012년도
해외건설업체의 상위 250대 기업의
매출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6위를 점유하면서
매출액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 우리 해외건설의 현황

한국기업은 1970년~1980년대에 건축, 토목부
문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발전,
석유화학 등의 플랜트 부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천기술 개발이나 기술 및 금융전문가 육
성의 한계로 응용기술 및 관리집약적 부문에 집중
하여 가격 경쟁력은 확보하였으나 근본적인 판로
개척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진출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에서 발주되는 사업의
거의 50%를 한국기업들이 수주하면서 이 지역의
주요 발주처로부터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
나, 외국사뿐 아니라 우리기업들 간의 과열경쟁 등
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익성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다. 그렇기에 진출지역 다변화와
기업별 특화공종 개발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가. 수주현황

- 한국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3년 37억 달러
수주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
년 6월 누계기준 5,753.8억 달러, 9,367건을 수주
- 연간 수주액이 100억 달러 이상인 시기는 1980년
대에 3회, 1990년대에 2회 이후, 2005년부터 지
속적으로 100억 달러를 상회, 2010년 이후 500억
달러 이상의 수주실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표1 수주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금액	252,482	47,640	49,148	71,579	59,144	64,881	30,507
건수	5,993	641	559	593	625	620	345

나. 연대별 수주특징

- 1970년대 : 노동집약적 단순시공(건축공종이 약 47%)
- 1980년대 : 노동집약적 기술 비교우위부문 진출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공종도 37% 점유)

○ 1990년대 : 공중 다각화(플랜트 35%, 건축 33%, 토목 29%)

○ 2000년대 : 플랜트공중 중심 진출(플랜트 64.7%점유)

○ 2010년대 : 기업별 특화공중 개발, 기술 및 관리 집약적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로 진화 필요

상기 주요 연대별 수주패턴을 통해 초기 노동집약적 단순시공에서 최근 기술 및 관리집약적 플랜트공중을 중심으로 진화하였으나, 기초기술(라이선스)과 금융조달력 부족이 향후 해외건설 진화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주요 공종별 분석

○ 10개 공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65년~2012년간 누계금액이 플랜트, 주택, 도로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누계건수는 도로, 주택, 발전 등의 순으로 드러남

○ 한국기업의 주택, 병원, 학교, 도로, 발전소 건설은 1960년대부터 해외로 진출하였으며 석유화학 공종은 최초 진출이 2004년도로 진출역사는 오래되지 않음

○ 2000년대 중반부터 사양 산업군으로 여겨지던 건축, 토목 공종도 2010년대에 들어 다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진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추세

표2 10개 공종 순위별 수주현황

(단위: 억 달러 / 건)

구분	플랜트	주택	도로	석유화학	항만	담수	철도	학교	병원	도시개발
금액	1,040.6	518.6	347.2	238.1	183.7	92.6	80.5	80	78.8	6.8
건수	321	744	908	62	217	49	82	240	160	71

○ 특히 원천기술 개발과 금융조달선 확보를 위한 전문가 육성, 안정적인 현지진출을 위한 리스크관리 등도 보완이 필요

- 원자력 및 태양에너지와 접목한 발전담수 플랜트, 저비용 고효율 도로포장 공법 및 주택패널 제작기술 개발 등도 현지특성과 정부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자간 국제금융기구뿐만 아니라 국내 시중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PF전문가 확보 시급

- 현지진출을 위한 국가 기본정보, 공사수행 환경, 현지 정치 및 치안상황 파악 등 리스크관리도 현지 진출시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적인 측면에서 필요함

2. 세계건설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최근(13.8.26) ENR¹지에서 발표한 2012년도 해외건설업체의 상위 250²대 기업의 매출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6위를 점유하면서 매출액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2011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매출액 1위를 점유하면서 우리 건설업체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페인은 2009년 세계 6위에서 2012년도에는 1위로 등극하면서 공중다각화를 지역다변화에 적절히 접목시키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국은 매출액 점유율이 2009년~2011년간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2012년도에는 3위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에서는 세계 250대 건설기업의 매출을 지역별, 공종별로 살펴보고 한국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 나아가 세계 1위에 새롭게 등극한 스페인의 매출현황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할 부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250대 기업의 매출 동향

아래표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기업들의 해외 매출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국내 매출액은 매년 8%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해외 매출액은 2010년도에 약간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3 최근 3년간 국내외 매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구분		2010(225대 기업)	2011(225대 기업)	2012(250대 기업)
자국	매출액(억 달러)	6,887	7,495	8,135
	전년대비 증감율(%)	10.8	8.8	8.5
해외	매출액(억 달러)	3,837	4,530	5,109
	전년대비 증감율(%)	-0.03	18.1	12.8
국내외	매출액(억 달러)	10,724	12,025	13,245
합 계	전년대비 증감율(%)	6.6	12.1	10.1

또한 상위 5개국의 해외 매출비중은 34.1%로 중국을 제외한 스페인, 미국, 독일, 프랑스의 해외 매출비중은 62.1%로 국내보다 국외 매출액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해외 매출 비중이 13.4%, 자국 매출 비중이 86.6%로 국내시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총 매출액 8,135억 달러 중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매출액은 4,351억 달러로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건설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고 외국기업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 매출 1위를 기록한 스페인의 해외 매출비중은 73.8%, 2위를 기록한 미국은 57%를 보이고 있어 대외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나. 250대 기업의 지역별 매출 동향

2012년 250대 기업 매출액의 지역별 구성 비율은 아시아(호주 포함)에서 27.2%, 유럽 20%, 중동 17.9%, 중남미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50대 기업의 매출 점유율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 중남미, 북미(캐나다)인 반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지역은 2011년도에 중동지역을 제치고 제 2위의 매출규모를 보였고 이어 2012년도에는 유럽지역을 제치고 제 1위 매출지역으로 자리를 차지하였다.

- 2011년을 기점으로 유럽에서의 매출 증가율 둔화, 아시아지역 매출 증가

1 ENR(Engineering News Record)은 한 해 동안의 세계 건설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글로벌 통계 보고서로서 미국의 McGraw Hill사에서 발표. 또한 'The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를 함께 발표하여 글로벌 건설기업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계자료이다.
 2 1992년~2011년간은 225대 기업의 매출액을 분석하였으나, 올해엔(2012년도분) 매출보고 기업수의 증가에 따라 250대 기업의 매출액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 중동, 아프리카지역, 매출 점유율은 점진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액 증가
- 중남미지역, 점진적 매출액(매출 점유율) 증가세 유지

표4 최근 3년간 지역별 매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

지역	매출액(점유율)		
	2010(225대 기업)	2011(225대 기업)	2012(250대 기업)
아시아/호주	766.4(20.0)	1,121.9(24.8)	1,388.1(27.2)
유럽	941.8(24.5)	1,014.6(22.4)	1,022.6(20.0)
중동	724.3(18.9)	830.7(18.3)	913.2(17.9)
라틴 아메리카	304.3(7.9)	385.2(8.5)	472.2(9.2)
미국	326.1(8.5)	367.1(8.1)	441.1(8.6)
중남부 아프리카	310.5(8.1)	332.8(7.3)	344.9(6.7)
북아프리카	295.4(7.7)	248.7(5.5)	223.7(4.4)
캐나다	130(3.4)	202(4.5)	274.9(5.4)
캐리비안	36.2(0.9)	26.1(0.6)	28.0(0.9)
지역미분류(Unallocated)	1.5(0.0)	1.2(0.0)	1.7(0.0)

다. 250대 기업의 공종별 매출 동향

2012년 250대 기업 매출액의 공종별 구성 비율은 교통시설이 25.6%, 석유화학이 23.4%, 건축이 20.2%, 전력이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 점유율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문은 산업시설, 제조공장 등인 반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문은 교통시설, 하수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1,000억 달러 돌파시점 : 석유화학(2011년), 건축(2012년)
- 교통시설부문은 2010년도에 주춤하다 다시 성장
-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공종 중 산업시설부문의 성장세 두각(유해폐기물은 등락 반복)

표5 최근 3년간 공종별 매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

공종	매출액(비율)		
	2010(225대 기업)	2011(225대 기업)	2012(250대 기업)
교통시설	1,090(28.4)	1,214.4(26.8)	1,307.1(25.6)
석유화학	893.2(23.3)	1,042.3(23.0)	1,197.7(23.4)
건축	830.3(21.6)	911.0(20.1)	1,032.6(20.2)
전력	386(10.1)	470.4(10.4)	519.0(10.2)
산업시설	209.5(5.5)	295.7(6.5)	421.2(8.2)
상수도	123.8(3.2)	153.5(3.4)	154.1(3.0)
제조공장	46.5(1.2)	60.8(1.3)	79.5(1.6)
하수도	63.9(1.7)	70.9(1.6)	71.7(1.4)
통신	29.6(0.8)	59.5(1.3)	57.6(1.1)
유해폐기물	6.3(0.2)	8.3(0.2)	20.8(0.4)
기타	157.5(4.1)	243.3(5.4)	249.1(4.9)
합계	3,836.6	4,530.2	5,110.5

최근 3년간 공종별 매출액 증감율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2년도에 유해 폐기물 부문이 230.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산업시설이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교통시설은 19.9%, 석유화학은 34.1%, 건축은 24.4% 증가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라. 250대 기업의 국가별 매출 동향

최근 3년간 국가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스페인의 1위 등극(2010년 매출액의 2배 이상 급증)과 중국의 3위 기록을 볼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은 2010년도에 4위, 2011년도에 2위에 이어 2012년 매출액 728.9억 달러 기록하면서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은 비록 해외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 폭에 제동이 걸려 3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2010년~2011년간 7위를 유지하다가 2012년도에는 413.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태리를 100억 달러 이상 차이로 제치고 6위를 차지하였으며 2011년~2012년간 중동지역 매출액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역시 전년에 3위에서 2위를 탈환하였으며 스페인과 함께 7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하면서 매출액도 약 20억 달러 내외 증가하였다. 일본, 터키, 호주도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였으며 브라질은 중남미,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매출증가로 전년에 이어 12위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스칸스카(Skanska)를 중심으로 11위를 유지하다가 한단계 올라섰으며 영국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최근 3년간 국가별 매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순위	2010(225대 기업)			2011(225대 기업)			2012(250대 기업)		
	국가(기업수)	금액	점유율	국가(기업수)	금액	점유율	국가(기업수)	금액	점유율
1	중국(51)	570.6	14.9	중국(52)	627.1	13.8	스페인(12)	728.9	14.3
2	미국(22)	449.0	11.7	스페인(12)	602.1	13.3	미국(33)	715.2	14
3	프랑스(5)	400.2	10.4	미국(26)	579.7	12.8	중국(55)	670.7	13.1
4	스페인(13)	356.5	9.3	독일(4)	408.3	9	독일(4)	434.9	8.5
5	독일(4)	354.5	9.2	프랑스(4)	408.3	9	프랑스(4)	432.4	8.5
6	이탈리아(23)	325.0	8.5	이탈리아(19)	333.7	7.4	한국(15)	413.9	8.1
7	한국(11)	183.1	4.8	한국(12)	257.7	5.7	이탈리아(17)	309.3	6.1
8	일본(13)	155.6	4.1	일본(14)	188.3	4.2	일본(15)	210.2	4.1
9	터키(31)	145.8	3.8	터키(33)	159.0	3.5	터키(38)	168.0	3.3
10	오스트리아(2)	122.6	3.2	영국(4)	127.5	2.8	스웨덴(1)	132.9	2.6
11	스웨덴(1)	116.3	3.0	스웨덴(1)	123.3	2.7	영국(3)	121.8	2.4
12	영국(4)	115.6	3.0	브라질(4)	95.9	2.1	브라질(4)	118.9	2.3
13	호주(4)	104.3	2.7	호주(4)	81.9	1.8	호주(4)	101.9	2.0

3. 최근 3년간 한국기업의 매출 분석

2012년도 한국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은 역대 최고인 8.1%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도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40.7%에 이어 2011년 대비 2012년도에도 60.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2012년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94.7억 달러 증가하면서 250대 기업의 중동지역 매출액의 29.2%를 점유했다. 아시아지역에서의 매출액 역시 2배 이상 신장되어 전년대비 약 50.7억 달러 증가한 반면 중남미에서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 한국의 지역별 매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지역	2010		2011		2012		'11~'12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중 동	11,146.9	15.4	17,232.6	20.7	26,700.9	29.2	54.9
아시아	3,634.1	4.7	4,713.4	4.2	9,782.3	7.0	107.5
아프리카	2,186.1	3.6	2,186.2	3.8	2,732.0	4.8	25.0
중남미	737.9	2.2	1,291.1	3.1	1,154.4	2.3	-10.6
북 미	507.9	1.6	241.1	0.7	598.4	1.4	148.2
기 타	100.3	-	104.2	-	421.7	-	304.7
합 계	18,313.2	4.8	25,768.6	4.8	41,389.7	8.1	60.6

가. 기업별 특징

이번에 발간된 ENR 250대 기업에 신규로 포함된 한국기업은 총 3개사로 최초 진입인데 187위를 기록한 롯데건설이 눈에 띈다. 또한 27단계 상승해 36위를 기록한 삼성물산, 20단계 상승해 46위를 기록한 포스코건설, 14단계 상승해 26위를 기록한 대림산업도 이목을 끈다. 이외에도 한화건설,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등도 선전하였으며 포스코ENG만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에 이어 삼성ENG이 한국내 1위를 차지하였으며 현대건설도 상위 10%인 25대 기업군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50대 기업군에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도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롯데건설을 비롯한 한국 전력, 금호산업도 250대 기업군에 진입하여 총 15개사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8 한국 기업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순위	2010(225대 기업)		순위	2011(225대 기업)		순위	2012(250대 기업)	
	업체명	해외매출		업체명	해외매출		업체명	해외매출
23	현대건설	43.1	15	삼성ENG	59.1	13	삼성ENG	86.5
34	삼성ENG	30.7	25	현대건설	42.5	15	현대건설	78.1
41	대림산업	23.8	32	GS건설	33.0	26	대림산업	48.0
48	GS건설	19.7	40	대림산업	27.0	28	GS건설	44.1
56	삼성물산	16.2	45	SK건설	24.3	35	SK건설	37.1

57	대우건설	16.1	50	대우건설	21.7	36	삼성물산	35.2
63	SK건설	14.3	63	삼성물산	15.7	40	대우건설	32.1
106	쌍용건설	6.7	66	포스코건설	15.5	46	포스코건설	25.6
123	포스코	5.7	101	한화건설	7.7	88	한화건설	10.2
132	한화건설	5.0	134	쌍용건설	4.6	132	쌍용건설	4.9
221	포스코ENG	1.6	163	두산건설	3.3	143	두산건설	4.4
			170	포스코ENG	3.2	187	롯데건설*	2.6
						194	포스코ENG	2.5
						245	한국전력*	1.2
						246	금호산업*	1.2
합계	11개	183.1	합계	12개	257.8	합계	15개	413.9

* 2012년 신규 진입

나. 공종별 특징

한국 기업들의 공종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건축, 제조공장, 전력부문이 2배 이상 신장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축부문은 2012년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교통부문을 제치고 전년 대비 약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매출 추이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은 공종 다각화도 다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산업/석유화학부문 점유율이 이 부문 전체 매출액의 15.4%를 점유하면서 가장 높은데 전력, 교통, 건축부문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9 한국의 공종별 매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공종	2010		2011		2012		'11-'12 매출액 증감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산업/석유화학	10,325.6	9.4	17,081.9	12.8	24,933.9	15.4	46.0
전 력	3,773.6	9.8	4,278.2	9.1	8,676.2	16.7	102.8
건 축	1,463.2	1.8	1,291.6	.4	2,948.7	2.9	128.3
교 통	1,681.5	1.5	2,431.4	2.0	2,762.5	2.1	13.6
제조공장	566.9	12.2	312.5	5.1	754.6	9.5	141.5
하폐수	454.8	7.1	33.0	0.5	324.7	4.5	884.1
상 수	-	-	254.5	1.7	250.1	1.6	-1.7
통 신	-	-	-	-	37.1	0.6	
유해폐기물	-	-	-	-	-	-	
기 타	47.8	0.3	85.6	0.4	718.64	2.9	739.1
전 체	18,313.3	4.8	25,768.6	5.7	41,406.3	8.1	60.6

4. 시사점

이상으로 우리 해외건설기업이 세계건설시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시장도 매우 경쟁이 심한 시장이고 더군다나 주요 선진국들은 막강한 자국의 ODA를 등에 업고 세계 곳곳에 진출하면서 간접적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ENR 혹은 Global Insight 등의 주요 글로벌 전문매체에서 밝히듯 전세계 건설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급격한 도시화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도시로 기업을 진출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2012년 국가별 글로벌 건설시장 매출액에서 1위 국가가 스페인인 점이 다소 의아할 수 있으나, 스페인은 스페인어권 국가인 중남미 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진출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2012년 매출액 상위 5개국의 지역별 매출 비중의 평균이 가장 큰 지역은 아시아권이며(32.2%), 중남미지역이 가장 낮게(9.4%)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중동, 아시아지역의 매출 신장뿐만 아니라 전략적 진출 지역을 확대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별 매출 비중이 낮은 중남미지역과 같은 국제 경쟁이 아직까지 덜한 지역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10 2012년 상위 5개국 지역별 매출 비중

(단위 : %)

순위	국가/지역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중남미	합 계
1	스페인	6.1	28.0	2.0	22.0	21.6	20.3	100.0
2	미 국	16.7	31.7	3.7	11.4	26.4	10.1	100.0
3	중 국	13.9	35.8	38.0	2.4	0.9	9.0	100.0
4	독 일	4.3	51.7	1.6	15.9	25.7	0.8	100.0
5	프랑스	4.8	13.9	11.7	47.3	15.7	6.6	100.0
평균		9.1	32.2	11.4	19.8	18.1	9.4	100.0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해외진출 분야 중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크며, 이들 분야의 개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와의 연계 혹은 운영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상대국에 접목시킨다면, 우리 해외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군다나 전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은 대부분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민·관 협력사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조달능력을 수반한 진출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글로벌 건설업체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제 해외진출은 국가간 대항전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각 부문의 강점을 기초로 상대국가가 가장 선호하는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건설시장의 성장추세와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경쟁국가와 그 국가의 주요 기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분석 자료

- McGraw-Hill Companies, Inc., ENR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and Global Contractors, August, 2011.
- McGraw-Hill Companies, Inc., ENR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and Global Contractors, August, 2012.
- McGraw-Hill Companies, Inc., ENR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and Global Contractors, August, 2013.